

군산 서민금융지원센터 이달 개소

창업·사업운영·생활안정 필요자금·저금리 전환대출 지원 등

군산시는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 등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12월 중 문을 열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군산 개소는 군산시와 김관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로, 김관영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현장 상담부터 입주 결정까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주 군산시를 방문해 사전 실사를 마치고, 지난 13일 현장 상담 실시 후 2주 만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군산시에 개소하

기로 전격 결정했다. 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의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금융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창업·사업운영·생활안정 등 필요자금을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 지원, 생계자금 대출 보증 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 채무조정 등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4명(서민금융진흥원 1명, 신용회복위원회 1명, 미소금융 2명)의 상담사가 상주하게 되며, 상담 수요에 따



군산시는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12월 개소한다.

라 근무인원 및 직제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내에 개소할 예정으로 금융 상담·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서민금융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12월 중으로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요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슬레이트 철거·개량사업 신청 접수

익산시가 2019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저소득층 우선)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그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물 소유자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

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에 드는 비용과 지붕개량비용으로,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철거·처리 336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

대상자에 한해서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단,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주택과 연계사업(빈집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시는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10월

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4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80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완료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마라톤클럽

저소득층 백미 400kg기탁

익산마라톤클럽(회장 김대환)은 지난 30일 익산시(시장 정현율)를 방문, 저소득층을 위해 쌀알라며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에 백미 400kg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마라톤대회 참가 후 마라톤클럽 회원들이 받은 기념품으로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대환 회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따뜻한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백미를 기부하고 있으며, 익산 마라톤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마라톤클럽 회원들의 의미 있는 나눔 동참에 감사하다"며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에 창립한 익산마라톤클럽은 지역사회에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훈연코스 주변 및 미륵산, 합라산, 배산의 자연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내 스포츠정신 함양과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사랑 나눔 김치 담그기 행사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백옥경)에서는 지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사랑 나눔 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해마다 군산시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추진해 온 나눔 사업으로 올해도 군산시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게 됐으며 군산시여성자원봉사회(회장 두점자)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10kg, 300박스를 정성을 담았다.

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김치는 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게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백옥경 이사장은 "지역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따뜻한 마음들이 김치를 통해 행복한 선물로 전달될 것 같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사랑 나눔 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며 "사랑의 나눔운동이 군산시 전역으로 번져나가 모두가 웃음 짓는 군

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겨울철 맞춤형 일자리 사업 청년 모집

군산시는 동절기를 맞아 공공현장 대민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 청년층 참여자를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채용일로부터 1개월 간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3일부터 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

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군산시 거주 시민으로 실직자, 취업취약계층 순으로 선발하며, 한시적으로 재산소득 초과자, 반복참여자로 모집인원 미달 시 선발될 수 있으나, 공공일자사업 중복참여

자, 1세대 2인 참여, 근로활동능력 미약자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사업에 따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이뤄지며 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최저임금 시급이 적용된다.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익산시에 복지서비스차량 3대를 전달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차량 전달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익산시 사회복지시설에 3대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는 지난 30일 익산시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차량 3대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사회복지서비스차량 지원사업 신청 결과 선정된 익산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차량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후원하는 2018년 사회복지서비스차량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인 맑은집, 장애인거주시설인 사랑원, 노인복지시설인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맑은집은 경승용차 1대, 사랑원과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은 12인승

승합차 각각 1대가 지원됐다. 김동수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차량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이 가능하기까지는 익산시민분들의 기부와 나눔이 있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박철웅 부시장은 "차량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장애인 및 노인복지 시설에 차량이 지원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의 첫 회의 개최

군산시는 지역경제 위기와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의 첫 회의를 가졌다.

군산시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는 군산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및 건설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대한전선건설협회 군산지회 고성식 회장, 군산대학교

김형주 교수, 군산시 고용지원센터 이희찬 소장, 민주노동군산지부 임일수 지부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승복 부시장은 "지역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내 주요 건설현장에 지역 생산자재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지역경제와 고용위기 지정에 따른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의를 가졌다.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